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Archdiocese of Detroit



21177 Halsted Road Northville, MI 48167

주임신부 오승수 시몬

사목회장 김광수 프란치스코 (T) 734-730-5736

연령회장 박재철 요셉 (T) 248-245-0695

사무실 (T) 248-442-9026 (F) 248-442-9020

www.standrewkimdetroit.org / email@standrewkimdetroi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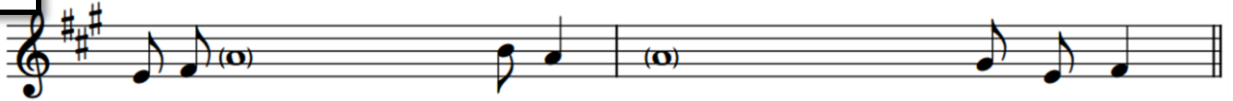
\*사무실 시간: 수~토: 9am-5pm, 일: 7:30am-2:30pm, 월&화: 휴무

**제 1 독서**

지혜서의 말씀 3,1-9 ]

**화 답 송**

[ 시편 126(125),1-2 ㄱ ㄴ.2 ㄷ ㄹ-3.4-5.6(◎ 5) ]



눈 물 로 씨 뿌리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라.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 8,31 ㄴ-39 ]

**복 음 환 호 송**

- ◎ **알렐루야** [ 1 베드 4,14 참조 ]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9,23-26 ]

**성 가**

입당 : 287      봉헌 : 218      성체 : 174, 꽃      파견 : 285

. 주일미사 : 토(특전) -5pm, 일-8am, 10am(교중 미사)

. Lansing 공소 미사 : 매월 2 째, 4 째 주일 4pm

. 평일미사 : 수, 금 :10am / 목 : 7:30pm

. 성모 신심미사 : 매월 첫 토요일 10am 대성전

. 성체현시 성시간 : 매월 첫 금요일 10am 대성전, 미사 10:30am

. 예비자 교리 : 주일미사 후 11:20 분, #10 교실

. 유아세례 : 매월 첫 주일 9am 대성전, 필요시 언제나 가능

. 병자 방문 및 봉성체 : 매월 3 째 목요일 2pm-4pm

. 차량 축복식 : 매월 2 째 주일 교중 미사후 11:30am 성전앞 주차장

. 고해성사 : 주일미사 전 30 분, 평일미사 전 15 분

. 가정 방문 기도 : 금요일 7:30 pm / 토요일 7:30 pm

( 항시 신청 가능 )

**본당 소식 및 안내**

**✕ 성경공부 9월 통독 분량 안내.**

- \* 신명기 1~17 장을 2 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자료: 본당 Web Home Page: 신부님 성경 강의 파일 52-58 참조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 숙제는 9/25(수)일까지 사무실 교육성경부 트레이에 넣어 주시거나 교육성경부장 이메일로 ([bongyul@gmail.com](mailto:bongyul@gmail.com))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디케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갖습니다.**

- \* 일시: 9/22(주일) 교중 미사후 소성전
- \* 대상: 관심있으신 전 신자분들
- \* 강사: 윤정란 클로틸다

**✕ 2024 년도 본당 새신자 환영회**

- \* 일시: 10/12 (토) 6pm \* 장소: 친교실
- \* 대상: 2023 년 10 월 ~ 2024 년 9 월
- \* 기간에 전입하신 가정, 예비신자분들
- \* 신청: 대성전 로비 테이블 위 신청서에 Sign up
- \* 문의: 선교부 정성은 막센시아( 248-756-4010)

**✕ 2025 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받습니다.**

- \* 기간: 8/25-9/22(주일) 까지 \* 신청: 사무실
- \* 신청비: 1 년치 12 권(성주간-특별) + 운송료 포함
  - 큰 글자책: \$120 / ▪ 정규 글자책: \$90

**✕ 올드레아 모임**

- \* 일시: 9/22(주일) 11:15am – 1:30pm 마리아 홀

**✕ 2024 대통령 봉사상 신청서 접수**

- \* 대상: 5 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 대상 봉사기간: 9/01/2023 년~8/31/2024 년
- \* 접수 마감: 9/30/2024 까지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 대통령 봉사상 관련 정보와 신청서는 본당 웹사이트 참조 :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youth/presidential-service-awards/>
- \* 기타 문의: 박찬 제라드 ([chanpark@umich.edu](mailto:chanpark@umich.edu))

**✕ 본당의 날 '기념품 타월' 안받으신 교우분들**

- \* 금년도 본당의 날 기념품 타월 못받으신 교우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

**교우들은 보십시오**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만물을 지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까닭[爲者]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있더라도 쓸데없습니다. 비록 주님은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어찌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겠습니까? 밭에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춰 밭을 갈고 거름을 주며, 더위에도 몸의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름다운 씨를 가꿉니다. 밭 거둬 때에 이르러서 곡식이 잘 되고 여물면, 땅 흘린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기뻐합니다.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고 밭거둬 때에 빈 대와 껌질만 있다면, 주인은 땅 흘린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시간[工夫] 때문에 그 밭을 박대합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을 버로 삼으며,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물 주시어 자라고 여물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운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義子]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물지 못하였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이라 하더라도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내려와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운다 한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승천 후 사도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두루 무수한 어려움 중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에 교회가 들어온 지 오륙십여 년 동안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교우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오늘날 박해가 불길같이 일어나 여러 교우들과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여러분까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인간적인 정[肉情] 때문에 차마 이별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생략> 여기 감옥에 있는 20 인은 아직 주님의 은총[主恩]으로 잘 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아주시십시오.<생략>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莫非主命],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莫非主賞罰]. 그러므로 이런 박해도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정과 영혼을 위한 큰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번 만번 바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김 신부가 사사로운 마음으로(私情), 정을 표해 드립니다(情表)

**우리들의 정성 - 감사합니다**

9/15/2024	연중 제 24 주일	\$ 10,788.00
9/11-15/2024	미사 예물	\$ 750.00
9/15/2024	감사 언급*	\$ 1,100.00
9/15/2024	제대꽃 봉헌금	\$ 0.00
8/31/2024	소 봉헌금	\$ 167.00
9/08/2024	Donation	\$

- ※ 감사 언급 : 이수찬 아오스딩&에리카 가정
- ※ 제대꽃 언급 :
- ※ Donation:



**미사 참석 인원 수 (9/15/2024)**

미 사	성인	미성년(1-17세)
(토) 5pm 특전 미사	45	10
주일 8am 미사	53	
주일 11am 미사	297	107
주일 11:30am 미사	No	Mass

※ 주일학교/한글학교 알립니다.

\* 2024-2025 주일학교 및 한글학교 등록:

사무실 QR 코드를 통해 등록 후 등록비는 9월 부터  
친교실 학부모회 테이블에 가셔서 납부 바랍니다.



※ 시니어 어르신들 가을소풍

\* 가을을 맞이하며 본당에서 가을소풍을 가려합니다. 산책  
하며 단풍을 즐기고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일시: 10월 19일 토요일

\* 장소: Cranbrook House and Garden

\* 일정 10am 성당버스출발/ 11am 가든 구경/ 1pm 점심

\* 신청: 성전 로비 테이블 위 신청서에 Sign Up 바랍니다.



남은 말 <옆면에서 계속>

누구나 유서를 작성할 때는 비장한 마음을 갖는다. 김대건 신부도  
죽음을 앞두고 조선의 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유서를 남겼다.  
이 글의 형식을 분석해 보면, 김대건은 감옥에서 틈틈이 이 글을  
써나갔음을 알 수 있다.<생략> 그는 감옥에서 짬을 내어 일단  
끝맺음한 편지에 다시 말을 덧붙여 살아남을 신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 했다. 김대건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만큼  
정성을 들여 신자들에게 글을 남겼다. 김대건이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권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마리아 사랑넷]

조광 이냐시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경향잡지, 2009년 10월호> 에서 발췌>

**전례 봉사자 안내**

		9 / 22 / 2024 한국 순교자103 성인 대축일 경축 이동	9 / 29 / 2024 연중 제 26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날)	10 / 06 / 2024 연중 제 26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날)
전례 봉사자	미사안내	이상래, 손우원	오장환, 서승일	김지훈, 김지홍
	복 사	민병선, 김인근	박재범, 박재홍	최진욱, 김육중
	독 서	백종석, 김혜림	박 찬, 이근우	전상원, 이희남
	예물 봉헌	이태화 요한마리아 비안네&보나 가정	박민용 세르지오&유스티나 가정	NV2 반
	해 설	인경원 에스텔	현종석 라우렌시오	이정택 알로이시오
	성체분배	손우원, 오예설, 조규화	남희석, 이귀염, 최승원	김유식, 서정복, 윤한호
	영어 미사	M. C.	왕호영	원라은
영어독서		김래오, 최현담	강유진, 박초빈	김수천, 봉유진
복 사		박초빈, 이서윤	김남경, 성유이	최현담, 성유안
Celebrant		Fr. Seungsoo Oh	Fr. TBA	Fr. Seungsoo Oh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Real Estate One Rochester

완벽한 이중언어와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Jessica Chang(장은진 데레사)

Office (248)218-6504  
Cell (213)905-9232  
1002 N. Main St. Rochester MI 48307  
jessicachang@realestateone.com  
jessicachangmi.com



Elisha Lee (이예지)  
REALTOR  
248.795.3023 (c)  
248.380.8800 (o)  
39500 Orchard Hill Place,  
Ste 100, Novi, MI 48375  
elishalee@kw.com  
elishalee.kw.com



주보 광고 신청 원하시면 본당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법률 사무소



### 변호사 이호일 (리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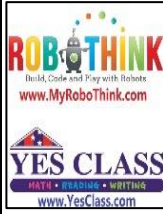
Cell: (248) 675-9215  
Fax: (248) 377-8256

Email: HOIL@LeeLawSolution.com

### RoboThink & YesClass Novi

이용우 (요셉)

41390 W 10 Mile Rd, Novi  
Office: (248) 482 8105  
Email: novi@myrobothink.com  
Web: myrobothink.com/novi  
Robot Kit with Coding  
Math and English



9월에 생일을 맞으신 안드레아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장환 레오나르도

안드레아회



### 센트럴 가정의학과/외과

길원호 (루카) MD, PhD

248) 905-3981



29877 Telegraph Rd, ste. 107  
Southfield, MI 48034

www.centralfamilyclinic.net

### Dental Clinic



최종률(미카엘)

4660 Washtenaw Ave.  
Ann Arbor, MI 48108  
Tel (734)572-4476  
www.jcdentalclinic.com



### 윤정란 건강보험

윤정란(클로틸다)

직장보험, 개인보험

Medicare supplement

Tel (248)210-8061(C) (248)729-6625(W)

jyoonagency@gmail.com



John P. Hwang, D.D.S.

황용광 (요한 바오로)

(248) 689 - 5508

1155 E Long Lake Road  
Suite #8, Troy, MI, 48085  
TFD@TroyFamDent.com



### 윤석정 닥터오

(Bruce Yoon)

자동차, 집, 사업체, 건강 보험

Senior Field Representative

Office (248) 692-4400 / Cell (248) 935-1659

byoon@acg.aaa.com



### 의료 통역사 - Certified

Medical Interpreter

의료기관과 상담사 통역 안내,  
메디케이드 수혜자, 보청기 정보  
안내, 필요시 환자 운송 서비스 가능

김영숙 (루시아) RN (313)587-8109

e mail: ahnysuk@gmail.com



강현일  
(헬레노)

Tel (313)562-4166(Dearborn),  
22431 Michigan Ave. Dearborn, MI 48124  
Tel (248)344-1100(Novi)  
41563 W. 10 Mile Rd, Novi, MI 48375

### 서울 미용실(Beauty Salon)

24263 Novi Road (10 Mile & Novi Rd)  
Novi, MI 48375

(상도 식품 옆)  
(248) 773-2281



월-토: 9am-8pm Excellence for Perm & Coloring  
일: 10am-6pm 민연옥 (마리아)

공인 회계사(CPA)

### CPA 이상연 (요한)

Tel (248)325-8078 Cell (248)403-6786

Fax. (248)671-0168

e-mail: leecpapc@gmail.com

Web: www.leecpapc.com

미안 했습니다-1 교우님들 공동창  
그동안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  
께 사과합니다. 특히 친구들 마음을 상  
하게 하는 줄 모르고 그냥 친구인데 뭐  
하는 안이한 얕은 마음으로 행한 말과  
행동들 돌이켜 생각하니 부끄럽고 후회  
스러운게 많아요. -엄동화 요셉-



김은의 (요안나)

Tel (248)758-8031

jhan@farmersagent.com

생명 주택 사업체 자동차 연금

### No Thai!

restaurant  
SIX LOCATIONS!  
ANN ARBOR, EAST LANSING, BRIGHTON  
NOTHAI.COM

### 발바라 HAIR SALON

각 종 Hair Style 전문(최명자발바라)

Salon (248)888-9274

Cell (248)255-1905

21934 Crescent Ct.,  
Farmington Hills, MI 48335



### 노화 (Aging) - 7

인생은 추억으로 만들어진 탑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쁨과 아픔들, 또 자랑스럽고 부끄러웠던 추억  
들을 모아 노화와 함께 얻어진 지혜로 쌓아올라가는  
것입니다. - 요셉의 생각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